

광주시 광주·전남 행정통합준비단 출범

부시장 등 15명... 대구·경북 통합 전문가 초청 특강도 시민의견 수렴...의회·정치권·시민사회단체 공감대 형성

광주시 광주·전남 행정통합준비단이 출범했다. 광주시는 25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공무원 6명과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단 9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광주·전남 통합준비단'을 출범시켰다고 27

일 밝혔다. 행정통합준비단은 시·도 통합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견 수렴, 의회·정치권 등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논의를 뒷받침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도 통합의 분야·단

계별 이행방안(로드맵)을 수립하고 국내외 통합사례 분석과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기본구상, 추진체계 등을 연구해 활발한 공론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또 광역행정 통합 준비에 앞서가 있는 대구·경북의 통합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하고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 토론회와 학습모임 운영 등을 통해 시·도민과 함께하는 통합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통합준비단장인 김종호 행정부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화는 시대적 요구이고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시·도민들의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광주전남통합준비단을 통해 의회, 시민사회단체, 지역사회,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동주 기자



인공지능 종합지원 멘토단 발대식 25일 오후 북구 광주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공지능종합지원 멘토단 발대식에 이용섭 시장, 연구원, 인공지능(AI)기업 대표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멘토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인공지능종합지원 멘토단 뒤편 전문가 80명 참여

광주에 등지를 튼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글로벌 역량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원스톱 종합지원서비스' 지원체계가 마련돼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25일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인공지능 종합 지원 멘토단 발대식을 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멘토단은 기술, 창업, 경영, 비즈니스, 법률·특허 등 4개 분야, 80여명으로 구성됐다. 국책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대학교수, AI 기업 대표, 변호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멘토단은 기술·사업 모델 개발, 자금 조달, 시장진출전략 구상, 특허 출원 등을 상담하고 지원한다. 2개월 이내 수시, 6개월 이내 정기 프로그램도 운용한다.

광주혁신추진위 'AI 중심도시' 국가정책화 권고

4개분야 33개 과제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광주 조성'을 시정 혁신과제로 국가정책화할 것을 광주시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혁신추진위가 2018년 11월 시장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한 이후 공공기관 혁신, 시립예술단 활성화, 스마트 제조 혁신,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 저출생 대책, 위드코로나 행정체제 등에 이은 22번째 권고·제안이다. 27일 혁신추진위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치열한 산업경쟁 속에서 세계 각국이 시활을 겪고 기술개발, 산업융합 등 국가차원의 인공지능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정부도 디지털기반 한국형 뉴딜정책을 발표

하는 등 AI를 국가정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점을 중시해 이같이 권고했다. 혁신추진위는 AI 강국 대한민국을 선도할 AI중심도시 광주 조성을 목표로 ▲정부정책을 선도할 AI 정책수립 ▲기술혁신 플랫폼, 인력 양성 등 AI 허브 기반 강화 ▲시 미래전략 산업으로 AI 기반 융합산업 육성 ▲스마트 공장·규제자유구역·창업·벤처 등 정책수단 활용 등 4개 분야 33개 과제를 시에 권고했다. 세부적으로는 투자자와 기업 유치, 스마트산업 조성, 연구기관 설립·유치 등을 제안했다. 또 AI 연구와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세계 10위권 내 성능을 가진 클라우드 기반 양자 또는 슈퍼컴퓨터를 구축·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나주혁신도시의 한국인터넷

진흥원 이외 인공지능 분야 국책연구기관이 없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점과 연계해 관계 연구기관을 적극 유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가전,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등 지역산업 연계 AI 융합프로젝트 2~3개를 선제적으로 개발·추진하는 등 정부, 지자체, 기업, R&D 기관, 대학 등 관계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협업협의체를 상설·정례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AI기반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초기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규제자유구역과 연계한 지능형 도시서비스 실증단지로서 스마트시티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광주형 스마트산업, 대학 중심의 AI 기반 창업·벤처클러스터 등을 조성해 나가도록 했다. /한동주 기자

광주비엔날레 5·18 40주기 '메이투데이' 다국적프로젝트...대만·서울·독일 전시작품 광주로 모여

광주비엔날레가 5·18민주화운동 40주기를 맞아 추진한 다국적 프로젝트 '메이투데이'(MaytoDay)가 대만과 서울, 독일에 이어 광주에서 전시된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다음달 14일부터 11월29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옛 국군광주병원, 무각사 토터스갤러리에서 '메이투데이'전을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1995년 광주비엔날레 출범 이후 12차례 열린 광주비엔날레의 역대 5·18출품작들이 다시 대중과 만나는 이번 전시는 5·18기념재단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협업으로 당시의 기록사진과 서적이 더해져 40년 전의 뜨거운 현장으로 안내한다. 민주화운동의 중심에서 예술을 통해 시대정신을 이끈 선봉자의 역할을 한 광주지역 작가들의 작업들도 선보인다. 제2회 광주비엔날레에 출품돼 외국의 참극 속에서 희생된 많은 이들의 고통을 여과 없이 드러내 이목을 끌었던 강연균 작가의 연작 시리즈 중 초기 작품인 '하늘과 땅 사이 1'이 공개된다. 제4회 광주비엔날레에 참여, 가상의 영화 포스터를 제작했던 박태규 작가의 '광주탈출'도 다시 만날 수 있다. 1980년 이후 10여 년간, 백 수십 여점이 이르는 판화 작품을 만들었던 조진호 전 광주시립미술관장의 첫 판화작품 '오월의 소리'도 볼 수 있다. 독일 출신 세계적인 기획자 우테 메타 바우어(Ute Meta Bauer)가 큐레이팅한 이번 전시는 1980년 5월 이후 40년이 흐른 오늘의 시점에서 민주주의의 또 다른 표현인 '광주정신'을 재조명한다. 메이투데이는 지난 5월 대만의 타이베이(5월1일~7월5일)를 시작으로 서울(6월3일~7월5일), 독일 쾰른(7월3일~9월27일)에서 순차적으로 펼쳐졌다. /김도기 기자

전남 추석연휴 코로나19 특별방역 강화도·시·군 공무원 248명 24시간 비상근무

전남도는 오는 30일부터 10월4일까지 추석 연휴기간을 코로나19 특별 방역주간으로 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와 시·군 합동으로 248명이 추석 전후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정밀 역학조사와 접촉자 분리, 현장 방역 등을 담당한다. 추석기간 동안 해외 입국자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공항과 경기 광역역에도 및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근무자를 배치하며, 입국자 인출과 수송대책도 마련했다. 해외 입국자는 임시 검사시설 2개소(260실)와 생활시설 13개소(131실)를 활용해 해당 지역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14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한다. 지역감염 확산에 대비한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을 위해 1대 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성묘 등 무단이탈을 방지토록 했다. 연휴기간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진단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도내 선별진료소 52개소를 운영한다. /최수남 기자

전남 '주소지 광주' 시외버스 종사자도 재난금 지원 직장은 전남 여건상 주소 광주 761명에 개인당 40만원씩

전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긴급지원을 하면서 직장이 전남에 있지만 광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종사자까지 포함시켜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외버스 감축운행과 급여삭감, 휴직권장 등으로 고

로즈닭 술불구이 전문 닭꿈

www.chickendream.kr
T. 062-571-6007

닭들의 꿈

인기메뉴 닭술불구이

연말연시 단체예약환영 / 1~2층 홀&룸 120석 완비 / 넓은 주차장

추천메뉴 닭백숙

닭볶음탕

통뼈닭발

닭내장탕

점심메뉴(am 11~pm 2)

- ※ 닭장떡국 7,000원
- ※ 닭곰탕 7,000원
- ※ 닭계장 7,000원
- ※ 닭죽 7,000원

광주시 북구 하서로 241번길 41 (양산동 367-12) 닭꿈